

[성가대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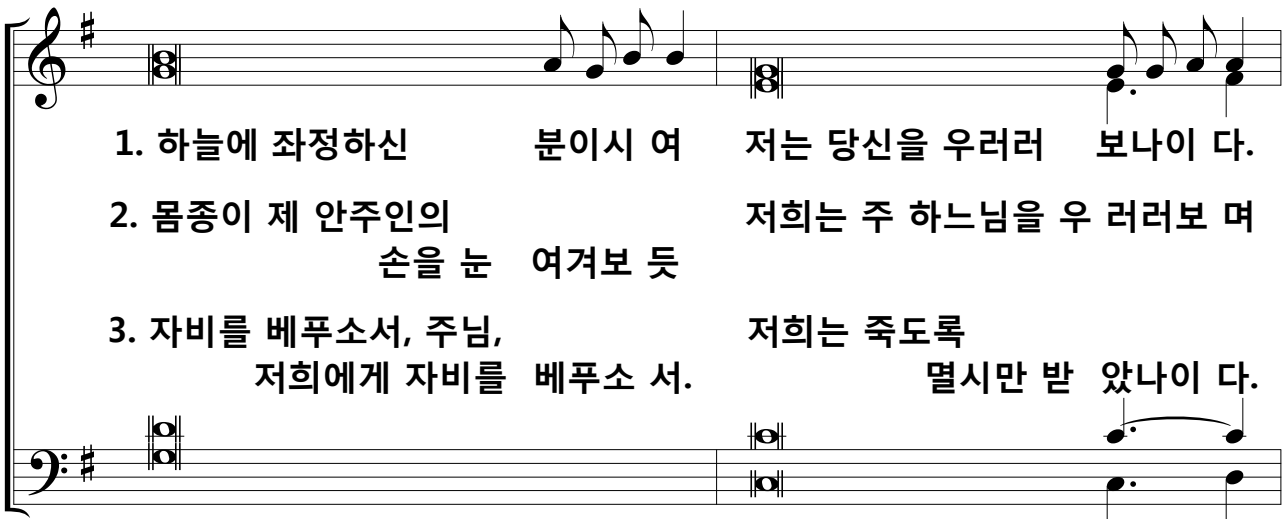
연중 제 14 주일 화답송 [나해]

2018. 07. 0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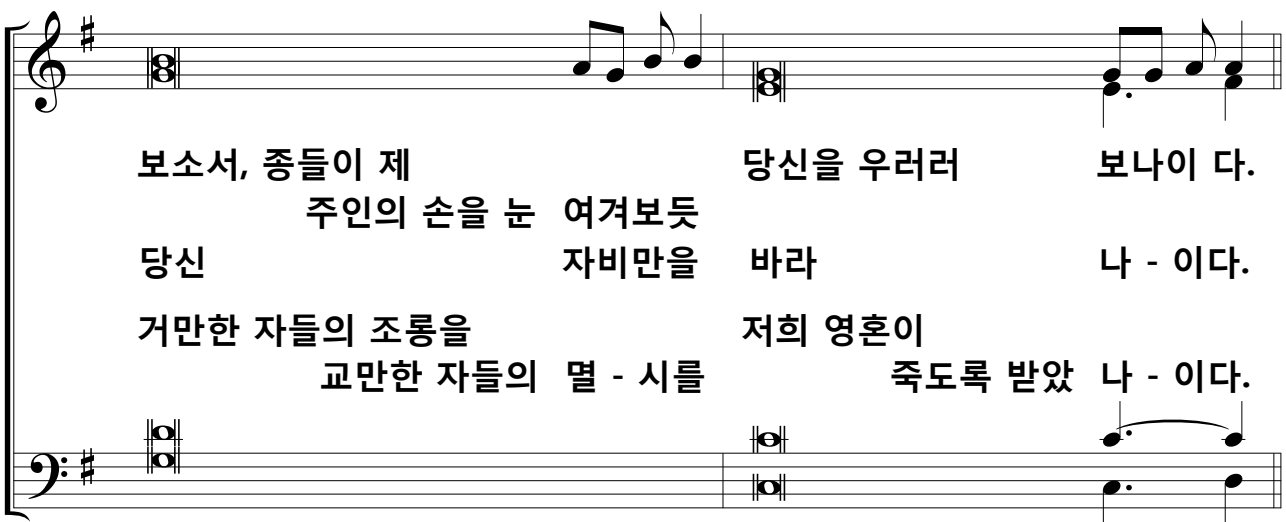
시편123(122), 1-2ㄱ. 2ㄴㄷㄹ. 3-4



(후렴) 저희는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- 신 자비만을 바라나이 다.



1.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 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 다.
2.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 여겨보 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 러러보 며
3. 자비를 베푸소서, 주님, 저희는 죽도록
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 서. 멸시만 받 았나이 다.



보소서, 종들이 제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 다.
주인의 손을 눈 여겨보듯
당신 자비만을 바라 나 - 이다.
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저희 영혼이
교만한 자들의 멸 - 시를 죽도록 받았 나 - 이다.